



### 新장비·의료진 확충... 뇌·심혈관 종합병원 도약

#### 뇌심혈관질환부문 대상 갈렌의료재단 박병원

갈렌의료재단 박병원(이사장 박진규·사진)은 지난 8일 척추전문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승격됐다. 병원 명칭도 굿스파인병원에서 박병원으로 개칭했다. 바뀐 건 이름만이 아니다. 지난해부터 증축 공사를 벌여 병상수를 80개에서 180개로 늘렸다. 진료과목을 5개에서 10개로 확대했다. 국내 대학병원에 두 배인 인형 혈관조영장비, 최신 버전의 뇌수술 전문 현미경을 도입했다. 중환자실과 응급실을 추가해 종합병원의 면모를 갖췄다. 평균양압 클린시스템을 도입한 병실을 마련해 골든타인이 생명인 뇌·심혈관 질환 환자에게 신속하면서도 안전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도 지정됐다. 박병원은 평택 및 경기남부지역 중심 혈관 질환을 중심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탈바꿈했다. 뇌·심혈관 질환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이유는 노령 인구 비율이 높은 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국내 65세 이상 인구는 662만 4000명으로 전체의 13.1%였다. 2030년에는 1269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은 암 다음으로 높은 고령자 사망 원인으로 꼽힌다. 동북지방통계청이 지난 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심장질환으로 413.3명, 뇌혈관질환으로 357.9명이 사망했다. 뇌·심혈관계 질환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의료진도 대거 늘었다. 대한신경외과 학회장을 지낸 순천향대병원 출신 교수를 비롯해 뇌혈관전문병원, 대학병원 심혈관 센터 등에서 경험을 쌓은 의료진을 초빙해 환자 진료체제를 빠르게 확보했다. 첨단 의료장비와 의료진이 맞물려 내는 시너지 효과도 상당하다. 해외 의료진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협력체제도 마련했다.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해서도 힘썼다. 메르스는 지난해 경기 평택시를 진원지로 번졌다. 좁은 공간 내 다수의 환자를 모아둔 다인병실,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

은 병문안과 병실의 낙후된 공조시스템이 바이러스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박병원은 병실 내 감염과 세균·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공조시스템과 항균시스템을 업그레이드했다. 또 환자 와 환자, 환자와 방문객 사이에서 불필요한 접촉을 줄이기 위해 모든 병실에 개인용 TV를 설치했다. 다인실을 1인실처럼 꾸몄다. 개인용 TV는 방송 시청에 그치지 않고 간호사 응급콜 등의 시스템이 적용됐다. 질환에 대한 정보, 병원 정보도 제공 받을 수 있다. 퇴원한 환자를 통해서도 피드백을 받는다. 퇴원환자에게 정보간행물인 '박병원 의료정보'를 격월로 보내고 설문 등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다. 박병원에는 8명의 신경외과 전문의를 비롯해 심장내과 전문의 등 의료진 20여 명이 상주하고 있다. 대학병원 이상의 뇌·심혈관 분야 최고 병원이 되는 것이 목표다. 박병원 관계자는 "노령화 시대가 될 수록 점점 늘어나는 뇌졸중을 비롯한 뇌혈관, 심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중심의료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우상기자 idol@hankyung.com**



### 미세 현미경·3D 컴퓨터 기술로 임플란트 시술

#### 임플란트부문 대상 한그루치과병원

한그루치과병원(원장 윤범희·사진, 박진성)은 3차원(3D) 컴퓨터 단층촬영과 캐드(CAD) 등 3차원 그래픽 툴을 이용한 디지털 임플란트 시술의 선두주자다. 2011년 설립된 한그루치과병원은 미세 현미경을 갖추고 있다. 환부를 25배까지 확대해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원인을 찾아낸다. 치근단절제술, 자기치아 재이식술 등 정밀 수술에도 미세 현미경을 활용해 성공률을 90% 이상으로 높이기도 했다. 치아 끝부분에서 염증이 발생했을 때도 미세 현미경을 이용하면 육안 치료 때보다 치료 효과가 뛰어나다. 치아 뿌리 끝부분은 잔 신경이 많아



염증만 골라 치료하기가 어려운 곳으로 꼽힌다. 한그루치과병원은 3차원 컴퓨터 기술을 적극 도입하기도 했다. 환자의 구강 구조나 치아 형태를 3차원으로 분석한 뒤 컴퓨터의 '가이드'에 따라 시술해 환자의 고통과 부작용을 줄였다. 먼저 치과치료용 3차원 컴퓨터 단층촬영(CT) 기술을 잇몸뼈의 모양, 골밀도, 신경 및 혈관 위치, 치아가 자리 잡은 모양 등을 정확하게 파악한다. 분석 결과에 따라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수술법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선정한 뒤 임플란트를 진행한다. 임플란트를 정밀하게 측정된 치조골에 맞춰 제작하기 때문에 잇몸을 거의 절개하지 않고 심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출혈이 줄어드는 만큼 회복도 빨라 환자의 만족도가 높다. 기존 수술법에 비해 수술 시간이 줄어들어 한 시간에 10개 이상의 임플란트를 심는 것도 가능하다. 임플란트 수술 후 보철물 제작에도

최첨단 장비인 치료용 캐드캠(CAD/CAM) 시스템을 구축해 환자들의 진료 시간을 대폭 단축했다. 캐드캠 시스템이란 임플란트나 보철물을 컴퓨터로 디자인한 도면에 따라 컴퓨터가 직접 제작하는 시스템이다. 3차원 구강 카메라를 통해 환자의 치아를 촬영한 뒤 컴퓨터로 보철물을 디자인하고 3D 프린터로 찍어내는 단계를 거친다. 이전까지는 정밀도가 부족해 널리 쓰이지 못했다. 캐드캠 시스템을 이용하면 1~3시간 내에 보철물이 완성된다. 치과 방문 횟수도 기존에는 2~3회 이상 방문해야 했지만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한 차례 방문으로 보철물을 완성할 수 있다. 윤범희 원장은 "3D 가이드 임플란트를 이용하면 미리 치조골 내부를 파악하기 때문에 신경을 건드리지 않아도 된다"며 "뼈에 무리를 줘 생기는 부작용 가능성이 기존 임플란트보다 훨씬 적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수술법에 비해 수술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환자들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어 한 번 경험해본 환자들이 계속 찾는다"고 말했다. **이우상기자 idol@hankyung.com**

### 레이저로 피부·주름 개선... 안티에이징 선도

#### 피부과-안티에이징부문 대상 유스피부과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피부 노화, 주름을 개선하는 '안티에이징'이 각광받고 있다. 유스피부과(원장 강현영·사진)는 필러, 레이저 등 비수술적 시술로 안티에이징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환자의 피부 상태, 노화 정도에 따른 맞춤형 의료 시술에는 강현영 원장의 10년 임상 경험이 녹아 있다. 수술에 비해 후유증과 부작용이 적은 시술 중심의 진료가 유스피부과의 인기 비결이다. 피부 노화의 가장 큰 적은 모공이다. 나이가 들면서 모공이 넓어질수록 피부는 탄력을 잃고 처진다.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지만 자외선 등 환경 요인은 피부 노화를 더욱 가속화한다. 잦은 찜질방 이용이나 사우나 등도 모공을 넓힐 수 있다. 이전까지는 한 번 넓어진 모공을 다시 좁히기 위해 박피를 이용했다. 하지만 피부 표면을 깎아내는 박피는 피부에 무리를 주고 흉조, 흉터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짧은 지속 시간 또한 박피의 단점이다. 유스피부과의 대표적 시술은 아토스 레이저와 '올세라 토스' '유스필' 등이다. 아토스레이저는 '콜라겐 폭탄 레이저'로도 불린다. 피부 탄력을 높이고 모공 축소, 주름 개선에 효과적이다. 아토스레이저는 기존 박피 방식의 프락셀 레이저와 달리 흉조나 멍, 상처가 생기지 않아 회복 기간이 필요 없다. 고주파 열에너지로 진피층과 피하지방층까지 전달해 피부 내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재생시키는 원리다. 피부 속 결합조직에 존재하는 엘라스틴은 탄력성이 우수한 단백질로 콜라겐



과 함께 피부조직의 유연성과 신축성을 높인다. 폴라젠과 엘라스틴 재생을 통해 피부 탄력을 다시 끌어올려 모공이 넓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한다. 올세라 토스는 목주름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고강도 리프트 레이저다. 흔히 '성형레이저'라 부른다. 눈가와 볼에 생긴 주름, 팔자주름과 목주름 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고 눈 아래 색소침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마와 이종턱, 턱선의 처진 부분을 끌어올려주는 리프트 효과 덕분에 인기가 많다. 고강도 집중 초음파와 고주파 레이저를 함께 이용한다. 유스필은 피부 탄력을 끌어올려주고 꺼진 부분을 자연스럽게 채워주는 필러

다. 히알루론산과 순수콜라겐, 자가혈청을 이용한다. 필러의 단점 중 하나인 이물감과 부자연스러움을 최소화했다. 피부 재생과 탄력, 볼륨까지 한 번에 개선한다. 강원장은 "모공 축소는 안티에이징의 기본으로 아토스레이저 등의 시술은 피부의 탄력을 찾아줘 모공이 확대되는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안티에이징 시장에서 강조하는 키워드는 자연스러움과 조화로운"이라며 "부담스럽지 않은 범위에서 기존 시술과 다른 한 차원 높은 품질의 시술로 환자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우상기자 idol@hankyung.com**



### 허리 디스크 환자 내시경 레이저 등 '맞춤 치료'

#### 허리디스크부문 대상 참포도나무병원

앞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허리디스크로 병원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0년에는 161만4820명이 허리디스크로 병원을 찾은 반면 2014년에는 196만7564명이 병원을 방문했다. 5년 사이 35만명(21.8%)이 증가한 것이다. 연평균 5.4%씩 증가하는 추세다. 참포도나무병원(원장 이동엽·사진 왼쪽, 안풍기·오른쪽)은 허리디스크 치료에 특화된 척추·관절·통증병원이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기관인증도 획득했다. 복지부 인증의료기관이란 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의 안전을 기준으로 서비스와 시술을 조사해 인증해주는 제도다. 참포도나무병원은 환자의 질환과 증상에 따라 비수술치료부터 고난도 수술 치료까지 가능한 인력과 인프라를 갖췄다. 개인마다 증상이 다른 허리 디스크 환자에게 1대 1 맞춤형 치료법을 제공해 치료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허리디스크 치료에 특화된 내시경 레



이저시술이 환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수술이 아닌 만큼 회복이 빠르고 부작용이 적다. 꼬리뼈를 통해 특수한 카테터(가는 관)를 척추의 통증부위에 삽입한 뒤 내시경을 통해 의료진이 눈으로 보며 튀어나온 디스크, 신경이 유착된 부위를 찾아낸다. 그다음 초정밀 레이저로 통증의 원인이 되는 부위나 물질을 제거해 허리디스크를 치료하는 방식이다. 좁아진 척추관을 확장시켜줄 수 있어 척추관협착증 치료에도 효과적이다. 척추관협착증이란 신경이 흐를 수 있도록 좁아지는 증상이다. 신경이 압박당하면서 복합적인 통증과 신경증세가 나타난다. 내시경 레이저 시술은 튀어나온 디스크, 인대의 크기를 줄이고 염증을 제거하는 데도 탁월하다. 치료가 까다로운

수술근 주위 유착까지 제거할 수 있어 수술하지 않고도 수술한 것 같은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좌골신경통을 앓는 환자들도 내시경 레이저시술을 통해 효과를 볼 수 있다. 수술 후 재발로 인해 재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내시경을 통해 환부를 직접 보며 통증 원인을 찾고 치료하기 때문에 원인을 알기 힘든 만성요통에도 효과적이다. 수술에 비해 부작용이 적은 까닭은 전신마취가 아닌 국소마취여서 피부를 절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시술 도중 환자와 의료진이 대화하며 상태를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도 있다. 피부 절개가 없어 부종, 통증, 감염, 흉터 등의 위험도 없다. 시술 시간도 20~30분으로 짧다.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 각종 만성질환이 있는 환자, 고령환자에게도 부담 없이 시술할 수 있다. 국내에서 내시경 레이저시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병원은 많지 않다.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대만, 브라질, 몽골, 이라크, 인도네시아 등 해외 의료진도 참포도나무병원을 방문해 시술 기법과 노하우를 배우고 있다. **이우상기자 idol@hankyung.com**